

‘의견거절’때 재감사 보수는 부르는게 값, 10배 치솟아

‘**흔돈의 회계**

③ 감사 수수료 급증

감사 ‘의견거절’ 받으면 상장폐지

다음 감사때도 수수료 높게 책정

트루원, 재감사 보수 ‘5억’ 달해
시간당 비용 고려해도 2배이상↑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앞둔 상장사들이 높아진 재감사 수수료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재감사에 따른 수수료는 기존 감사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상장사에겐 늘어난 비용이 부담인데다 지정감사제 도입땐 감사수수료 상승이 예상돼 향후 감사 비용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A기업이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하자 5억원의 감사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기업이 기준에 지불하던 감사수수료는 1억원

〈트루원 감사보수〉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단위 : 천원)
2017년	도원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180,000	990
2016년(재감사)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492,000	2,571
2016년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42,000	1,500
2015년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41,000	561

〈세미콘라이트 감사보수〉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단위 : 천원)
2017년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 분기, 연별도 및 연결감사	420,000	6,295
2016년(재감사)	안진회계법인	재무제표 분기, 연별도 및 연결감사	1,062,760	6,295
2016년	안진회계법인	재무제표 분기, 연별도 및 연결감사	50,000	888
2015년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 분기, 연별도 및 연결감사	65,000	888

/각 사 사업보고서

수준이었다.

통상적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기업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회사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 한국거래소(KRX)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감사를 거쳐 회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던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기존 감사수수료의 2~3배

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해마다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가 재감사 결과로 살아난 트루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존 감사계약 당시 보수는 4200만원이었으나 재감사 때는 총 4억9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비용은 10배나 증가했고, 시간 당 비용을 고려했을 때 2배 이상 증

가한 수준이다.

같은 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후 재감사를 통해 거래가 재개된 세미콘라이트 역시 기존 5000만원의 감사수수료에서 재감사 때 10억원이 넘는 감사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감사에 소요된 시간이 888시간에서 6295시간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이를 감안해도 재감사에 따른 시간 당 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파트너 회계사가 기업에 ‘의견거절’을 결정했다는 것은 회사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때문에 재감사는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고, 자칫 실수하면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리스크가 상당하다”면서 “늘어난 감사시간 비용에 위험수당이 포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들은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도 재감사 상승폭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재감사 시 리스크 분산을 위해 다른 소형 법인에서 재감사를 받은 후 재재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상장사 IR 담당자는 “회계법인은 높

은 감사수수료가 위험부담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중의 재감사를 요구하는 등 최대한 안정적인 방식을 택한다”고 말했다.

한 번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적정을 받은 다음해에도 감사수수료는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 트루원은 2015년에 4100만원에 불과했던 감사보수가 2016년 의견거절을 받은 후 2017년 회계연도 감사에서는 감사보수가 1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세미콘라이트 역시 6500만원(2015년 회계연도 감사보수)에서 올해 4억2000만원을 감사보수로 지불했다.

한편 트루원과 세미콘라이트(연결기준)는 지난 해 각각 24억원, 9078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감사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사 지배구조안, 삼성 겨냥한 것 아냐”

최종구 “금융위, 상반기 조직개편”
금융그룹 통합 감독 등 ‘핵심과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상반기 중 금융위 조직을 개편해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 및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P2P(개인 간·Peer to peer), 가상화폐, 블록체인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금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

며 상반기 중 새로운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가 미흡할 경우 판매정지 등 강력한 제재도 도입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 광고, 모집·계약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청구·지급 등 전 단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해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설계사 등 모집채널을 개편하고, 약관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보험 상품은 판매중지까지도 검토해 소비자 신뢰저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핵심과제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업계와 당국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해 연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입법 전 계열사 주식 소유를 권고한 것이 사실상 삼성 등 특정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는 IFRS17도입 등 국제적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해당 사안의 목적이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할 근거가 없다”며 “탈법목적 차명거래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5월 중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금호아시아나 빌딩’ 4180억에 매각

독일 도이치자산운용에 절차 완료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서울시 광화문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관 건물이 매각된다.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9일 금호아시아나본관을 독일계 자산운용사인 도이치자산운용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가는 4180억원이다.

지난 3월 2일 금호아시아나본관 매각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맺은 지 두 달 만에 매각 절차가 완료됐다.

매각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금호사옥은 해산 및 청산을 거쳐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약 2500억원의 순현금 유입 및 약 1500억원의 손익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매각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잇따른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2월 주식당보대출 등을 통한 2600억원의 신규차입 ▲3월 CJ대한통운 지분 매각을 통한 940억원의

/양성운 기자 ysw@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원~~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2018. 5. 29. (화)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